

보도시점 : 2026. 10. 27.(화) 16:30 이후(10. 28.(수) 조간) / 배포 : 2026. 10. 27.(화)

고흥 '우주발사체' 국가산업단지 조성 속도

- 152만㎡ 규모 산업단지계획 심의, 발사체 제조·연구 등 산업생태계 구축

- 국토교통부(장관 홍지선)는 10월 27일(화)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*를 개최하여 **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** 계획을 심의하였다.

*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

《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개요 》

- (위 치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봉래면 일원
- (면 적) 1,519,660㎡(약 46만평)
- (사 업 비) 1,729억원
- (유치업종) 우주항공 관련 제조산업, 부품산업, 연구개발업
- (사업시행자 및 기간) 한국토지주택공사, 전남개발공사 / 2026년 ~ 2032년

-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사업의 일환으로, '24.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이노스페이스 등 11개 핵심 앵커·스타트업 기업과 입주협약을 체결하여 입주 수요를 확보하였고 산단 인근에 조성 중인 국방우주시험센터와 연계한 국방과학연구소도 입주할 예정이다.

- 이를 토대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치업종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반영한 산업단지계획을 확정하고 기한 내 산단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'27년에는 보상절차에 착수하는 등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- 고흥군은 ‘22.12월 우주산업 발사체 클러스터로 지정*된 지역이다.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으며,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인근에는 우주항공청 주관의 민간전용발사장도 ’27년까지 건설될 예정으로 있어 발사체 관련 기업의 입주를 지원하는 배후 산업공간으로서, 국방우주시험센터와 연계한 연구시설을 제공하는 등 민관이 합동으로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.

* (전남) 발사체 클러스터, (경남) 위성 클러스터, (대전) 우주연구·인재개발

- 또한, 산단 조성으로 인해 2,958억원 생산 유발 및 1,673명 고용 유발 효과*가 예상되는 등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보고서('26.1)

- 국토교통부 박지홍 국토도시실장은 “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지정은 국내 유일의 발사장을 보유한 고흥에 우주발사체 제조·연구 거점을 함께 구축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시너지를 창출하고, 첨단산업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”고 강조하며,
- “나로우주센터, 민간발사장, 국방우주시험센터 등 인근의 산업·연구기관과 긴밀히 연계되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경수 (044-201-3674)
		담당자	사무관	이미리 (044-201-3702)
		담당자	주무관	목용균 (044-201-3700)
		담당자	전문위원	선양래 (044-201-3703)

